

['생태계 보물섬, 제주' 그 百年의 기록<3>]20세기초 유럽 각국에 제주식물 첫선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입력 : 2004. 01.28. 00:01:00



제1부 제주식물 세계화 100년

2.세계가 놀랐다-타케(상)

1백여년전 19세기가 끝나갈 무렵 제주사회에는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있었다. 그리스도에 의한 인간 구원의 길을 전파하려는 선교가 시작된 것은 18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 출신의 '페네'(Ch. Peynet, 1873~1948)가 제주본당의 초대 신부로 임명돼 제주에 부임한 때가 그해 5월이었다. 지난 1999년은 제주에 천주교가 전래된지 1백주년이 되는 해였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그해 제주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제주선교 1백돌을 기념하기도 했다.

제주의 식물이 서양에 처음 알려진 것도 제주 선교역사와 때를 같이한다. 일본인 대학생 이치카와가 1905년 제주의 식물을 채집해 일본으로 건너간 이후 제주의 식물을 유럽 등 서양에 처음 전파한 사람은 프랑스 출신의 신부였다. 그 주인공이 바로 타케(Emile Joseph Taquet, 1873~1952) 신부다. 그는 엄택기(嚴宅基)라는 한국명도 갖고 있어 '엄신부' '엄 에밀리오 신부'로 불렸다.

타케는 1873년 10월 30일 벨기에(Belgium) 국경 가까운 프랑스 루르드 주에서 태어나 1892년 9월 23일부터 1897년 9월 27일까지 파리 외방전교회 졸업과 동시에 사제서품을 받았다.

신부로서 첫 임지인 한국으로 부임하기 위해 파리를 출발한 것은 신부로 임명된 당시인 24세 때로서 1897년 10월 28일이다. 제물포를 거쳐 서울에는 1898년 1월 5일에 도착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5년 전의 일이다.

타케가 제주에 부임한 것은 광무5년(1901) 제주 전역에 걸쳐 천주교도와 도민이 무력 충돌한 '이재수란'(신축교안)이 발생한 이듬해인 1902년 4월.

천주교 제주교구가 펴낸 '제주복음 전래 100년사'(1997)는 타케의 한국행과 제주 부임 과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1897년에 한국에 도착한 타케는 진주본당을 설립한 후 1900년 6월 본당을 마산포로 옮기고 그곳에서 사목하던 중 1902년 무세(G. Mousset, 1876~1957)신부와 본당을 맞바꾸어 제주 한논(서귀포시 호근동 하논) 본당의 제3대 주임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타케는 1902년 한논본당에 잠시 거주한 후 그해 6~7월 사이에 홍로(烘爐)로 옮긴다. 홍로는 지금의 서귀포시 서홍동 일대다. 홍로 본당은 당시 집 한 채를 매입, 사제관과 성당으로 개조한 것이다.

그는 1915년까지 13년간 대부분의 기간을 이 곳(북자수도원 면형의 집)에서 지내며 선교 활동과 함께 왕성하게 식물 채집에 나선다. 타케가 머물던 홍로 본당이 선교 역사 뿐만 아니라 제주 근대식물 연구에 매우 중요한 족적을 남긴 공간으로 회자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타케는 이후 1915년까지 제주에 머무는 동안 집중적으로 제주도의 식물을 채집한다. 그가 채

집한 표본은 유럽 각국의 대학이나 박물관에 매각되거나 기증되면서 유럽의 학자들에 의해 발표되었다. 세계 식물사에 제주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는 표본을 보내 얻은 수익금으로 포교 사업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비박사 석주명 선생이 한 기고문에서 “타케가 선교사이기도 했지만 濟州島 식물채집조사가로서 오히려 유명했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에는 ‘(타케신부가)1906~1907년에 선배 선교사인 방 세레자 요한(Faurie, 方) 신부와 함께, 그리고 1908년 이후에는 단독으로 식물을 채집하여 왕벚나무를 비롯하여 애기나비나물, 능수버들, 산버들, 그리고 섬잔대 등을 유럽의 학계에 보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타케의 서귀포 재임중 행적은 당시 그가 뫼텔주교에게 띄운 여러 통의 서한에서 생생하게 드러난다. 뫼텔주교는 당시 조선교구장이었다. 이 서한은 한국교회사연구소가 1965년 발견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타케가 작성한 것으로는 모두 18통이 전해지고 있다. 타케의 서한은 당시 제주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신부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타케의 서한은 ‘한논’에서 작성된 것이 1통, 제주에서 작성된 것이 6통이고 나머지는 모두 홍로(烘爐)에서 작성된 것이다.

타케와 당시 신부들의 서한은 제주도의 복음 전파 과정과 각 본당들의 정착·변모과정 등 제주선교사를 규명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타케의 서한에는 식물채집과 그 표본을 서구에 보내는 과정, 식물을 팔아 선교비용으로 충당하는 내용 등 제주도의 식물이 서양으로 진출하는 역사가 생생히 기록돼 있어 관심을 끈다.

[사진설명]타케신부의 생전 모습.<천주교 제주교구 제공>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